

세상 끝에 결산 받을 종들

(마25:14-30)

서론: 한 해가 지나가기 전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결산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상 끝에서 결산 받게 될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으로 서야 합니다.

1. 각각 재능대로 맡겨진 달란트

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엡1:4-6).

-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빌2:13).

나. 내게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신 것에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 재능에 따라 맡겨진 달란트의 양과 상관없이 작은 것도 충성되고, 성실히 관리하는 참된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2. 달란트를 맡은 종들

가. 결산 앞에서 주인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칭찬받은 종들처럼, 가진 재능을 충실히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 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 결정하고, 주인에 대해 몰라 쫓겨난 악한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 주인과 종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성실한 신앙생활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마7:21-2).

3. 내게 맡기신 달란트

가.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늘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마24:14, 막3:13-15).

-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 내가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문제와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고전10:13).

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사람 살리는 달란트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3오늘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론: 하나님은 재능대로 내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꼭 맞는 옷을 하나님이 입히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맡겨진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때 잘 하였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나의 모든 처한 현장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임을 알고, 충성된 종으로 전도자로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